

해남, 주민자치시대 활짝 연다

14개 읍·면 전체 전환...실질적 권한 부여 특징

복일면 작은학교 살리기 모범 사례...지역 활력

해남군이 올해 ESG 경영비전 완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 의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시대를 활짝 연다.

해남군은 지난해 삼산, 북평, 복일, 계곡, 황산 등 관내 5개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한데 이어 현산, 옥전, 산이 등 3개면이 행안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가 지정을 받아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군은 해남읍을 비롯한 나머지 6개 읍·면도 연내 주민자치회를 창립할 계획으로 14개 읍·면 전체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 대표기구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사무

위·수탁 및 협의가능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특징이 있다.

군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제화와 함께 자치활동가 양성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왔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조성되고, 주민자치회의 활동도 매우 활발해지면서 읍면별 자치모형도 속속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평면에서 처음으로 주민총회가 열렸으며 주민총회에서 수립한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북평의 비전'을 선포했다. 해남군은 지역의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향후 예산에 반영해 주민제안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특히 복일면의 작은학교 살리기 캠페인은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돼 의제를 발굴하고, 학생모심 활동을 펼치면서 성공리

에 주민자치 활동이 자리 잡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작은학교 살리기 활동을 통해 올해 20가구 94명이 해남군 복일면에 새로운 등지를 틀고, 46명의 학생이 복일초 및 북일중에서 새학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중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복일초, 두문중 사례를 바탕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올해 현산·계곡면으로 확대 실시된다. 오는 2월 중 전남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내 문화유적지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현산면 역사탐방, 마을과 학생·어린이 함께 교육을 만들어가는 북평면 마을교육공동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모델을 구축하는 옥전면, 마을모두가 공동체를 이루려는 마산면, 지역 특산물 레시피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산이면 등 해남형 자치모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해남군 주민자치는 전국 주민자치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2

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과 핵심인재양성 양성교육에서도 2년 연속 수상을 거두며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군에서도 주민자치를 뒷받침할 인재양성을 위해 주민자치와 공동체를 이끌어갈 풀뿌리 리더로서 활동가를 키우기 위한 자치활동가 아카데미를 운영해 총 79명의 자치활동가를 양성했다. 올해도 3기 자치활동가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2월 중순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2022년 ESG 윤리경영을 긍정비전으로 분야별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은 지속가능한 긍정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군은 투명성과 공정이라는 ESG 윤리경영의 정책 과제 실현을 통해 땅끝 해남에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모범적인 주민자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주민 누구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윤남초등학교 지효린(5학년), 지예린(1학년) 두 자매가 엄마와 함께 윤남면사무소를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저금통 4개를 기탁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 두자매 이웃돕기 '훈훈'

10년간 모은 140여만원 기탁

새해를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한 무안군 두자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 무안군 주민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4일 윤남면에 따르면 최근 윤남초등학교 지효린(5학년), 지예린(1학년) 두 자매가 엄마와 함께 면사무소에 찾아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달라며 저금통 4개를 기탁했다.

저금통에는 두 학생이 10여 년 간 모은

지폐와 동전이 가득했으며, 금액을 세어본 결과 무려 141만 9,330원이 들어있었다.

지효린 어린이는 "10년 전에 삼촌이 저금통을 사주셔서 저축을 시작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돈을 모아 갖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했지만 주위에 행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돼 동생과 함께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두 자매는 2년 전에 윤남파출소에 저금통 2개와 마스크를 기탁하는 선정을 펼치기도 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이종욱 목포해양경찰서장 명절 대비 치안현장 점검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종욱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주요 항포구, 여객선 선착장, 도선장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와 치안현장 점검에 나섰다.

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종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설 연휴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신안군 암태도 남방 여객선 선착장과 안좌도 두리 도선장 등 관내 취약 항포구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도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금지 등 안전준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관할 신안파출소에 방문해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설 연휴기간 빈틈없는 해양안전 관리와 각종 사고를 대비해 상시 긴급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바지도와 반월도를 연결해주는 신안군의 해양 관광명소인 '퍼즐'을 찾아 관광객의 연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종욱 서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주요 선착장 및 항포구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동훈 기자



다산 초당 설경. 이곳은 역사·예술적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다산 관련 유물 공개 구입

내달 21일까지 신청 접수

강진군 다산박물관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 및 선생의 직계혈족·형제, 자매, 제자,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학문적·예술적 보존 가치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다산박물관은

공립박물관의 정체성 확립과 전시·교육·연구자료·공공저작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월 21일까지 강진군 홈페이지 등에 유물구입 관련 공고를 게시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유물 구입 대상은 개인 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이며 매도 희망자는 유물매도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

비해 다산박물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유물매도 관련 서류는 강진군청 홈페이지 및 다산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재병 박물관장은 "유물매도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유물구입위원회를 거쳐 구입 예정 유물로 확정하고, 감정평가위원회 심의 및 불법문화재 검증 절차 이후 소유권 이전 작업을 진행해 다산박물관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진도, 설 맞이 쌀 100가마 쏜다

'진도아리랑' SNS 팔로우 이벤트...내달 4일까지

진도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진도군의 공식 농수특산물 판매 쇼핑몰인 '진도아리랑' 활성화를 위해 SNS 팔로우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소셜미디어 이용자 누구나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진도아리랑 공식 SNS를 찾아 2월 4일(금)까지 팔로우

하고 댓글로 인증하면 된다. 친구를 많이 언급할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지며,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쌀 10kg 한가마를 상품으로 전달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월 9일 진도아리랑 공식 SNS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진도=박병호 기자

위동섭 강진경찰서장 취임

제76대 강진경찰서장에 위동섭 서장이 취임했다.

24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회의실에서 경찰서 지휘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동섭 경찰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위동섭 신임 서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충훈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지역치안발전을 위한 협력단체장과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취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위동섭 서장은 취임사에서 "엄정한

법 집행의 근원은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켜 공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며 "군민이 절박한 상황에서 처할 때 내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따뜻한 경찰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신안 도서낙도에 식수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전남 지역협력단은 최근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신안군 도서낙도 주민들에게 K-water에서 생산한 비상 급수용 병물 2만병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신안군 매화도, 병풍도, 수지도 지역의 마을 상수도 수원지 저수량이 급격히 감소해 식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고, 현 상태가

지속되면 제한 급수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협력단은 주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2만병을 우선 지원하고, 빠른 시간 내 추가 병물을 확보·지원 하는 등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신안군 도서낙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무안 윤남면 이장협, 불우이웃 성금 전달

무안군 윤남면은 최근 윤남면 이장협 의회가 최근 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성금은 윤남면 30개 마을 이장들이 지속적으로 나눔으로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윤남면을 만들기 위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했다. 정성현 이장협회장은 "이번 성금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마을의 대표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윤남면장은 "기부하신 성금은 윤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남부홀딩스, 대한적십자사에 1억 기탁

㈜남부홀딩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태운 대표가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1억 원을 기탁했다.

기탁금 중 50%는 진도군에 5년 동안 지정 기탁될 예정이며, 기탁된 기부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기탁금은 대한적십자사 진도지구협의회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진도=박병호 기자

정태운 대표는 "기탁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기탁금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